

SENIOR 조선

인생을 품격 있게 경영하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 senior.chosun.com

JULY
2013
VOL.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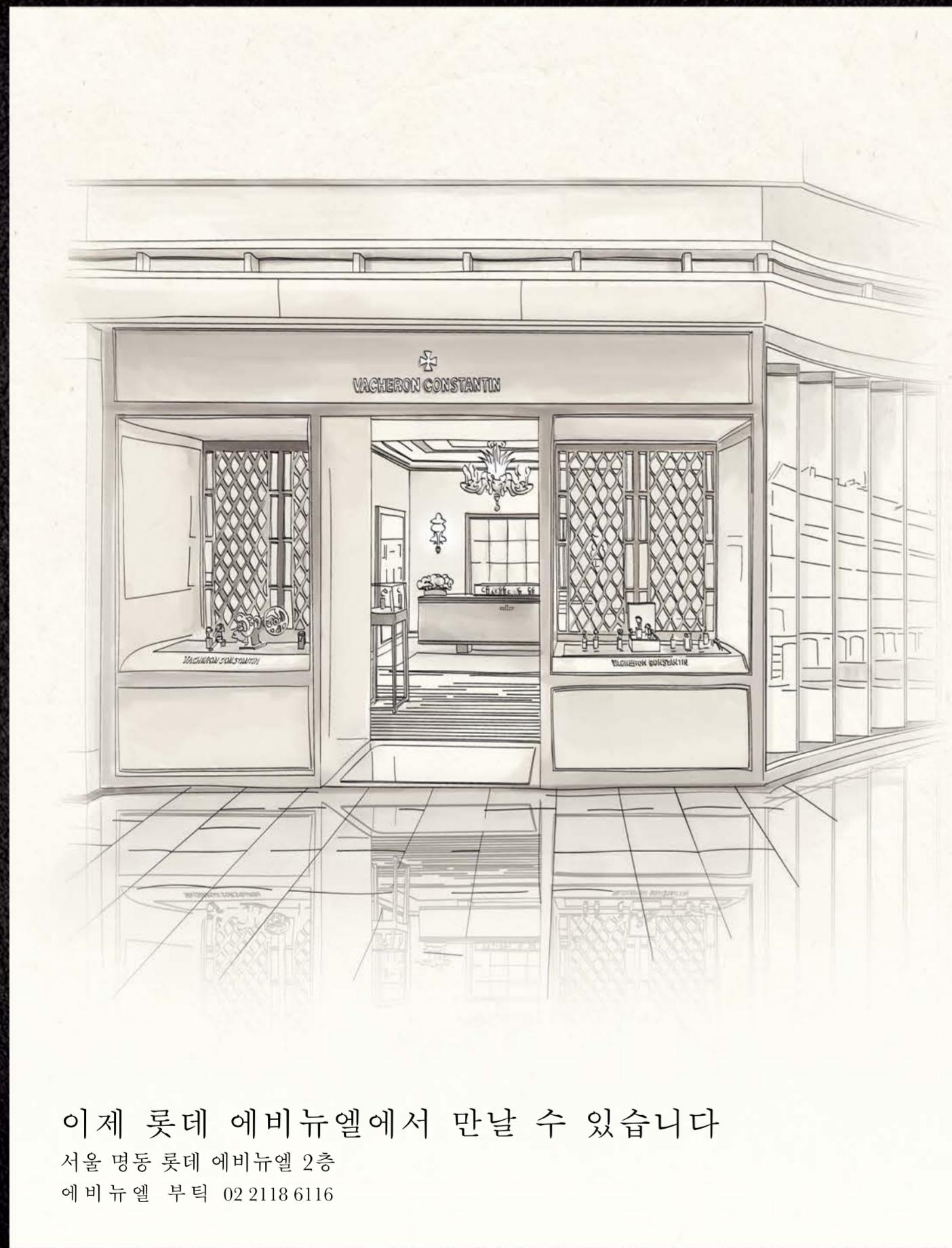


Come Inside

캐나다에서 다시 찾은 신혼
리마인드 허니문
리조트 스타일 vs 크루즈 스타일

FOUNDED IN 1755 IN GENEVA

Patrimony Traditionnelle 14-Day Tourbillon



이제 롯데 에비뉴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 명동 롯데 에비뉴엘 2층
에비뉴엘 부티크 02 2118 6116

www.vacheron-constantin.com



VACHERON CONSTANTIN
Manufacture Horlogère, Genève, depuis 1755.

inside

VOL.15 JULY 2013 〈시니어조선〉은 인생을 품격 있게 경영하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입니다.



06 SECOND LIFE 나는 왜 목수를 꿈꾸는가

'목수'라는 직업에는 로망이 깃들어 있다.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의 전업 리스트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목수에 대하여.

08 TRAVEL 캐나다에서 다시 찾은 신혼, 리마인드 허니문

올해 결혼 20년 차로 접어든 김판규, 이선일 부부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로 리마인드 허니문을 떠났다. 천혜의 풍경 속에서 그들이 보내 6일간의 달콤한 시간.

12 THIS CAR K9과 떠나는 건죽 기행 ②

기아차의 프리미엄 세단 K9의 건죽 기행 두 번째 장소는 성북동에 위치한 한국기구박물관이다. 한국적 미감의 집결체인 한국기구박물관에서 K9의 진면목을 헤아려본다.

14 THIS MAN 호서대 이기영 교수

식품공학자, 환경공학자이자 심어송라이터. 2001년 이후 '지구를 위하여', '한강은 흐른다' 등의 노래를 꾸준히 발표해온 그에게 노래는 그저 일상이다.

15 FOOD 고기 먹고 힘내자!

더위에 자진 여름이면,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쓴다'는 옛말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강남 일대에서 맛볼 만한 소고기 수육 요리 몇 가지.

16 LOOK 리조트 스타일 vs 크루즈 스타일

스타일은 자리를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 휴가지에서도 방식은 금물이다.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은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다.



COVER

한국적 미감의 집결체라 할 수 있는 한국기구박물관과 기아차 프리미엄 세단 K9의 조우. 지난 6월 중순

한국기구박물관의 대문을 활짝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궁궐체의 차마선. 선은 그저 하나의 형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거기에는 병행성과 속도가 담겨 있어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역학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이 된다. K9 이마저를 결집하는 요소 또한 선이다. K9은 선을 통해 차량의 기품과 감성, 성능을 표현하는 독창적인 디자인 언어를 자냈다.

사진 김민관(민관김스튜디오)

19 SENIOR EXPO 시니어 엑스포 열전

오는 10월 열리는 '2013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를 비롯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니어 대상 행사를.

20 ENTERPRISE K9의 특별한 선물

세상에 좋은 자동차는 많다. 하지만 고객의 품격까지 세심하게 지켜내는 차는 드물다.

최근 기아차는 프리미엄 세단 K9 고객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다.

24 FINANCE 생애 재무설계, 지금 당장 시작하라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전략. 은퇴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 투자를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25 HEALTH 日光 흑색점 조심하세요!

여름철이면 유독 피부를 괴롭히는 자외선. 방심했다간 각종 피부 색소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 그중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노인성 흑색점.

26 RESORT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타임세어 오너십

내 집 같은 곳에서 휴식을 즐길 순 없을까.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의 타임세어 오너십은 바로 그런 서비스.

27 BULLETIN 이달의 소식

보스의 프리미엄 휴스터 '시니어마이트 1SR', 클래식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몽블랑의 '스타 데이트 오토마티ック 컬렉션',

피에르시가의 한정판 쿠바 시가 '엘레아일문도 앤너버사리오' 등.

PUBLISHER

시니어조선
발행인 양근만 yangkm@chosun.com
방정오 cbang@chosun.com

CO-PUBLISHER

시니어파트너즈
대표 박은경 maypark@yourstage.com
상무 김형래 hr.kim@yourstage.com
이사 전영선 ys.chun@yourstage.com

EDITORIAL

편집장 정지현 loctoc@chosun.com
선임기자 박소란 psr@chosun.com
객원기자 노준형 jh.roh@yourstage.com
박철진 soook49@naver.com
사진 C.영상미디어
디자인 별디자인
미술교정 봉수연 swimbg@naver.com
교열 윤현숙 irene0827@hanmail.net

ADVERTISING & MARKETING

팀장 양훈식 huns@chosun.com
과장 이진섭 realfire@chosun.com

ON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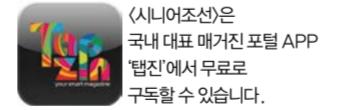
부장 이재훈 jacapas@chosun.com
기자 박준현 pjh81@chosun.com
웹에디터 문형경 effira@chosun.com

INFORMATION

취재 편집 02-724-7868
광고마케팅 02-724-7849
재무 02-724-7864
대표 메일 senior@chosun.com
트위터 @seniorchosun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niorchosun
창간일 2012년 4월 25일
발행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등록번호 서울 다10391
등록일자 2012년 3월 19일
발행소 서울특별시 종구 세종대로 21길 30
인쇄 (주)미디어티피에스
출판 아이엔프로세스

※ 〈시니어조선〉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등부이촌동, 원효로, 한강로, 명동, 남대문로, 무교동, 공덕동, 서교동, 디자일단지, 경기 분당, 과천, 일산, 영통, 기흥 등 수도권 프리미엄 지역 및 오피스 일자 지역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배포됩니다.

※ 본 매거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 저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시니어조선〉의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니어조선〉 7월호 이벤트

인생을 품격 있게 경영하는 시니어의 라이프스타일을 물습니다.

지금 당장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시니어조선〉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퀴즈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총 다섯 분에 추첨해 유저클 '스팸여러'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GIFT 유저클 '스팸여러' 관람권(2매) 5명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enior.chosun.com) 또는 이메일(senior@chosun.com)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restige Class AIRTEL

프레스티지 클래스 항공 요금 수준에 특급호텔 1박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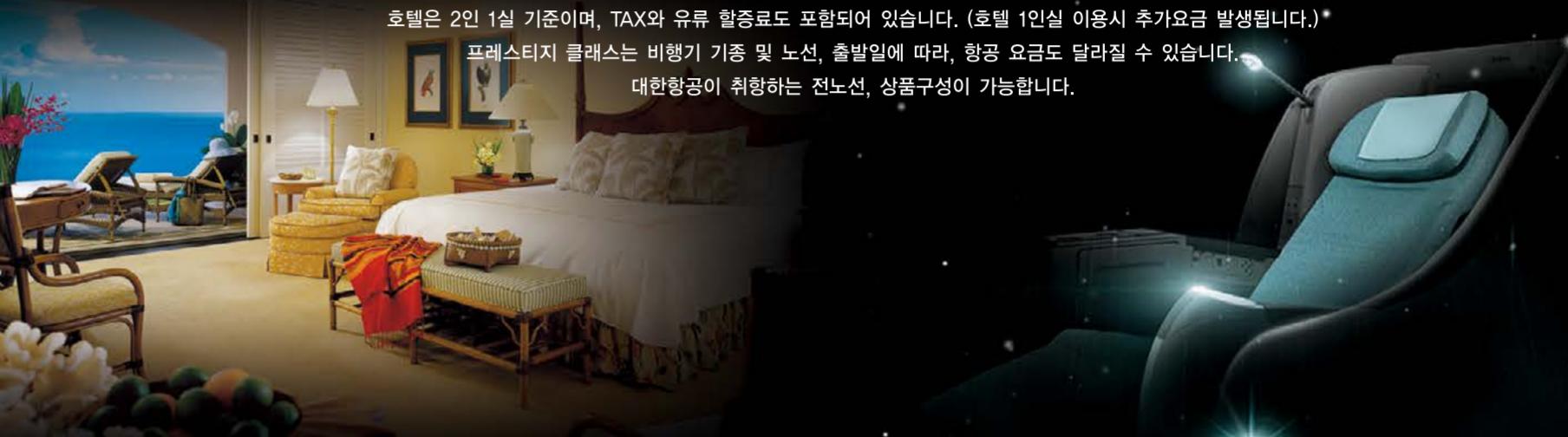
Prestige Class AIRTEL이란, 대한항공의 Prestige Class 항공과 특급호텔 1박을 포함하는 특별상품입니다. (TAX와 유류 할증료 포함)

본 Prestige Class AIRTEL 상품의 혜택은 KALPAK을 통하여 예약 및 발권을 진행하시는 경우에 한합니다.

호텔은 2인 1실 기준이며, TAX와 유류 할증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텔 1인실 이용시 추가요금 발생됩니다.)*

프레스티지 클래스는 비행기 기종 및 노선, 출발일에 따라, 항공 요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전노선, 상품구성이 가능합니다.



KALPAK

The Luxury Travel Collection

서울특별시 종구 서소문동 41-3 대한항공빌딩 6층 한진관광 KALPAK TEAM 대표전화: 02)726-5800, Fax: 02)771-9084 http://www.kalpak.co.kr
6th Floor, Korean Air Bldg., #41-3, Seosomun-Dong, Jung-Gu, Seoul, 100-813 Korea

SECOND LIFE



© 진홍범

나는 왜 목수를 꿈꾸는가

‘목수’라는 직업에는 막연한 로망이깃들어 있다.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의 전업 리스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직종이기도 하다.
나만의 공간에서 목수로 살아가는 즐거움에 대하여.

“인생은 당신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순간 시작된다.” 책장을 넘기다 우연히 발견한 문구에 눈길이 멈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다.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소속된 직장이 없어지는 셈이니 자신의 존재감마저 사라질 것 같아서다. 하지만, 그렇기만 할까. 학교를 다니고, 졸업 후 입사해 20~30년간 일하는 직장 생활이라는 게 어떤가.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가장으로서,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감 속에서 어느 정도 ‘나를 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찌보면 직장이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은퇴는 참인생의 시작일 수 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난 뒤 당당히 나의 권리와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내가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침내 도래한 것이다.

목수. 입 밖으로 소리내어 발음해보면 어딘지 모르게 투박하고 소박한 느낌이 물어나는 어감을 지닌 목수는 요즘 현대인들 사이에서 이상적인 직종 중 하나로 꼽힌다. 젊은 세대들은 정형화된 기업 문화를 거부하거나 취업이 어려운 시기의 대안으로서 이를 선호한다. 정신적 여유로움을 느낌과 동시에 몸을 움직여 일하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높이 사는 때문이다. 은퇴를 앞두고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니어 세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목공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다. 소설가 박범신 또한 어느 책에서 말년에 조그만 목공소 같은 것을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소설이라는 게 논리가 가득 쌓여있고 논리의 그물망 속에 작가가 들어 있는 거다. 소설을 쓴다는 게 굉장히 압박인데 목공예를 하고 있으면 그런 논리로부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나무를 만지고 있으면 다른 어떤 것들도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고향 논산에 내려가 기구 좀 갖춰놓고, 좋은 대매도 사서 손녀딸 의자나 식탁 같은 것을 짜고 싶다”며 목공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 것.

누구나 싱그러운 나무 향이 감도는 공간에서 나무를 깎고 다듬는 작업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보이는 것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듯 목작업도 그렇다. 심리적 힐링이 될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무턱대고 목공 전문가 과정에 등록하고, 장비를 사들이기 전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많은 수고와 인내가 요구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창업을 하기 위해 목공을 배우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기에 최근 들어 가구 공방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DIY 가구 공방의 경우 업체 간의 경쟁이 만만치 않아서 가격 경쟁력이나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는다. 원목을 다루는 본격 목가구 공방을 계획한다면 당장 수익을 낼 욕심을 버리고 일정 기간 버틸 수 있어야 한다. 공방 고유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다른 목가구와 차별성을 꾀해야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목공에 배울 수 있는 곳

나만의 가구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920-2

문의 033-243-2554

www.diycc.co.kr

나무풍경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48

문의 02-2642-0945

www.woodscape.co.kr

만들고 싶은 것들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331-33 토디하우스

문의 02-498-9626

www.diylife.co.kr

메이안공방

주소 서울시 마포구 종동 48-21

문의 02-307-2022

www.mayan.kr

유니크マイスター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60-1

문의 031-716-3339

www.uniquemeister.com

정재원기구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264-7

문의 070-4024-8662

www.jeongjae.com

해랄레공방

주소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659

문의 031-760-7600

www.diyhafele.co.kr

후아이의나무공방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912-5

문의 031-967-3313

www.huawood.com



© 진홍범

진홍범 씨는 전통 목가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목공에 작가다.
2009년 헤이리 유리재 갤러리, 공평 이트센터, 2011년 경인 미술관에 이어
지난 4월에는 인사이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연 바 있다.
홈페이지(www.jinhongbum.co.kr)에 기면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다.



INTERVIEW 목수 진홍범

“목작업을 하면서 인생의 결이 바뀌었다”

대학에서 건축도시계획을 전공한 후 부동산개발기업에 입사, 수도권 일대를 누비며 성실히 일한 진홍범 씨. 어느 날 갑자기 목수로 전업해 ‘목수 진씨’로 살아온 지 6년차에 접어든 그를 만났다.

Q 전업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누구나 20대 때에는 방향의 시기를 겪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유홍준 저)라는 책을 통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 깨닫게 된 것이다. 건축을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뒤늦게 대학에 진학했다. 졸업할 때인 2002~2003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어서 부동산 개발 회사에 취직했다. 출근하고, 시장 조사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접대 술자리나 회식에 참석하고, 퇴근하는 반복적인 생활의 연속이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고, 성과를 낼 때면 뿌듯하기도 했다. 그런데 7년이 한계였던 것 같다. 어느 날,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아니,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2000년 후반에 이르러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동종 업계에서 아직 조차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목공소를 열었다.

Q 목작업을 하는 데 중요한 자산은 무엇인가 내 자산 중 하나는 나이다. 어린 시절을 보낸 1970~1980년 대만 해도 한국적인 무언가가 생활 전반에 묻어 있었다. 동네 모습이나 생활 방식 등 그 시절의 아련한 인정과 멋이 있다. 내가 그런 우리의 정감을 느꼈던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싶다. 지금의 20~30대는 당시의 경험이 없어서 그 느낌을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즘 북유럽 스타일 가구가 유행이지만, 내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모든 가구는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환경이나 생활 방식에 맞춰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나. 한국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미감이 있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디자인이나 말로 한국인의 성정에 가장 잘 맞을 것이다. 목작업을 할 때 한국 전통 가옥과 생활 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Q 목수로 사는 즐거움은 어떤 것인가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찾은 기분이다. 조직에 잘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나의 경우 조직보다 개인적인 활동에 맞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혼자 힘으로 해냈을 때 얻는 성취감이란!

직장 생활이 실질적인 학문인 ‘경영학’이라면 목공 작업은 정신적인 소양을 높이는 ‘인문학’과 같다고 할까. 나는 돈보다는 성취감을 택했고, 한 계단 한 계단 위를 향해 올라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디지만 그럼에도 행복하다. 수백억 원을 받는 스포츠 선수가 부럽지 않고, 기업의 CEO라는 명예가 탐나지 않는다면, 이보다 좋은 직업은 없지 않을까.

TRAVEL



“캐나다에서 신혼의 설렘 그대로 안고 떠나요”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관광청은 이 시대의 멋진 중년 부부에게 리마인드 허니문을 선물했다. 그 첫 번째 행선지인 브리티시컬럼비아로 떠난 행운의 주인공은 김판규·이선일 부부. 올해 결혼 20년 차로 접어든 이 금실 좋은 부부는 천혜의 풍경 속에서 6일간의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여행은 계획과 동시에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했던가. 1994년 결혼에 끝난 후 지난 20년간 맞벌이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김판규(48), 이선일(46) 부부. 부부는 최근 20주년 기념 리마인드 허니문을 준비해왔다. 외동딸을 대학에 보낸 후 둘만의 시간이 부쩍 늘어난 때문이기도 하다.

“올해는 우리 부부에게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중요한 시기예요. 지난 세월 함께 열심히 살았던 만큼 낯선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생활을 계획하기 원했죠.” 그런 부부는 곳곳에 보물 같은 풍경을 간직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로 떠나길 주저하지 않았다.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관광청이 주최한 ‘리마인드 허니문’ 이벤트 공모에 직접 사연을 보낸 선일씨는 “20년간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열심히 살아왔더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로 당첨에 대한 기쁨을 전했다.

기대감으로 한껏 부푼 부부는 마침내 지난 6월 3일 저녁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9시간의 비행 끝에 밴쿠버에 도착, 초溫은 선착장에서 40년의 취항 역사를 자인 BC페리를 타고

빅토리아로 향했다. 조지해협을 건너는 동안 바라본 드넓은 하늘과 바다. 평화가 깃든 여러 개의 섬. 그 아름다움에 감탄한 부부는 페리 갑판 위에서 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중세의 멋 간직한 빅토리아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주도(州都) 빅토리아는 중세의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곳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곳은 이너하버.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와 호수와 같은 모습을 형성한 항구다. 항구 주변에는 웅장한 건물과 색색의 아름다운 꽃, 나무가 가득하다. 근처 호텔에 짐을 푸 부부는 아름다운 항구가 한눈에 들어오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즐겼다. 캐나다를 대표하는 맛이라 할 수 있는 연어 요리는 특히 일품. 위도가 높은 캐나다는 이 계절 저녁 9시를 넘겨서야 서서히 해가 지는데, 이후 펼쳐진 낭만적인 야경은 빅토리아가 부부에게 안긴 최고의 선물이라 할 만하다. 주변을 밝힌 수많은 불빛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다. 다음 날 부부는 이너하버 주변을 산책하며



“빅토리아와 밴쿠버는 캐나다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곳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다. 노부부가 다정하게 손잡고 산책을 하고 오붓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아,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다.”

본격적으로 빅토리아의 향취를 만끽했다. 항구 부근 피셔맨스와프의 아기자기한 수상가옥을 구경한 다음 고풍스러운 33개의 푸른 지붕 꼭대기에는 영국인 탐험가 조지 밴쿠버의 입상이 있다. 5, 6 빅토리아의 상징인 페어몬트 앱프레스 호텔에서 즐긴 영국식 애프터눈 티를 즐겼다. 3단 트레이에 세팅된 스콘과 타르트, 마카롱 등과 즐기는 흥차의 깊고 그윽한 맛에 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행복하다”는 말을 감탄사처럼 연발했다. 이날 찾은 골드스트리트 주립공원 역시 빅토리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물. 1000년 이상의 수령을 자랑하는 삼나무, 편백나무, 측백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유독 숲을 좋아하는 부부는 선일 씨는 “수종 자체가 다르니 국내에서 보는 군락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자연 그대로의 원시림이 마치 〈제인에이〉 같은 소설의 배경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8~11월까지 이곳 개울에서는 세계 최대의 연어 떼 이동을 볼 수 있다. 그 모습이 황금빛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 바로 골드스트리트이다. 빅토리아에서 북으로 얼마간 달리다 보면 세계적인 정원 부차트 가든도 만날 수 있다. 선큰 가든, 로즈 가든, 일본 가든, 이탈리아 가든, 지중해 가든 등 다섯 개의 정원으로 꾸며진 이곳에 만발한 각양각색의 꽃들을 감상하다 보면 부부의 말대로 빅토리아가 얼마나 “전통을 잘 간직한 아름다운 꽃의 도시”인지 깨닫게 된다.

밴쿠버 도심에서 만나는 원시림

사흘째 되는 날 부부는 수상비행기를 타고 밴쿠버로 향했다. 난생처음 타본 수상비행기는 7000피트 상공을 나는 30여분 동안 손에서 한시도 카메라를 놓지 않은 판규 씨, 연신 셔터를 누른다. 비행기 밖으로는 광활한 바다와 섬, 산맥, 호수 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주지하듯 밴쿠버는 캐나다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꿈의 도시. 순수한 자연환경과 활기찬 대도시 비즈니스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차이나타운을 돌아 최초의 다운타운인 캐스터운의 증기시계 앞에서 부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영국 여왕이 기증했다는 캐나다 유일의 증기시계는 캐스

운의 명물. 15분 단위로 시계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채로운 모습이 호기심을 자아냈다. 다운타운에서 북서쪽으로 뛰어나온 반도에는 그 유명한 스텐리공원이 있다. 400만 m² 규모의 이 공원은 전 세계에서 도심을 끈 공원 가운데 가장 큰 곳으로 꼽힌다. 광대한 원시림 사이 수많은 산책로가 거미줄처럼 얹기설기 이어진 것이 이채롭다. 산책을 마치고 스텐리공원의 해안도로와 연결된 잉글리시베이에 들은 부부는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거나 요트를 타는 사람들과 만나 잠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저녁에는 216m 높이의 하버센터에 올라 스테이크와 시

푸드를 즐겼다. 건물 꼭대기에 마련된 접시 모양의 전망대는 회전식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밴쿠버 시내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다. 부부는

멋진 풍광이 내려다보이는 둘만의 오붓한 테이블에서 의

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밴쿠버
캐스터운의 명물
증기시계. 15분
단위로 증기를
뿜어낸다.

김판규·이선일 부부가 즐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허니문 BEST 5



1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사당
1897년 완공된 빅토리아의 명물. 건물 꼭대기에는 밴쿠버 섬을 황해한 18세기 영국 항해가 조지 밴쿠버의 입상이 자리하고 있다. 의사당 주변은 각종 나무와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산책코스. 밤이 되면 건물 실루엣을 따라 걸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2 부차트 가든
1904년 이탈리아인 부부 로버트와 제니가 석회암 채석장에 꽃과 나무를 심으면서 세계적인 정원으로 탈바꿈시켰다. 다섯 개의 정원에는 각양각색의 꽃이 만발하고, 그 사이사이로 산책로가 연결돼 있다. 석회암을 파낸 곳에 꽃을 심었기 때문에 15m 위에서 정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3 수상비행기
페리와 함께 캐나다만의 독특한 교통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창공에서 내려다보면 도심은 물론 웅장한 산맥과 원시림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물 위에서 뜨고, 착륙하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밴쿠버-빅토리아 간 수상비행기를 이용하면 30분 만에 이동 완료.



4 밴쿠버의 랜드마크. 범선 모양의 웅장한 건물로, 미치 거대한 배가 정박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86년 열린 밴쿠버 엑스포를 기념해 지어고 내부에 호텔, 레스토랑, 영화관 등이 있다. 인근에는 알래스카로 떠나는 크루즈 선박 티미널도 자리한다. 매년 7월 1일 캐나다 데이에는 이곳에서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진다.



5 캐밀리노 서스펜션 브리지
캐밀리노 강에서 약 70m 상공에 자리한 길이 137m의 다리로, 1889년 건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 유명세를 떨쳤다. 바람만 불면 뻐개대는 소리가 심해 원주민 사이에서는 ‘웃는 다리’로 불린다고. 아찔한 계곡 사이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면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는 산책로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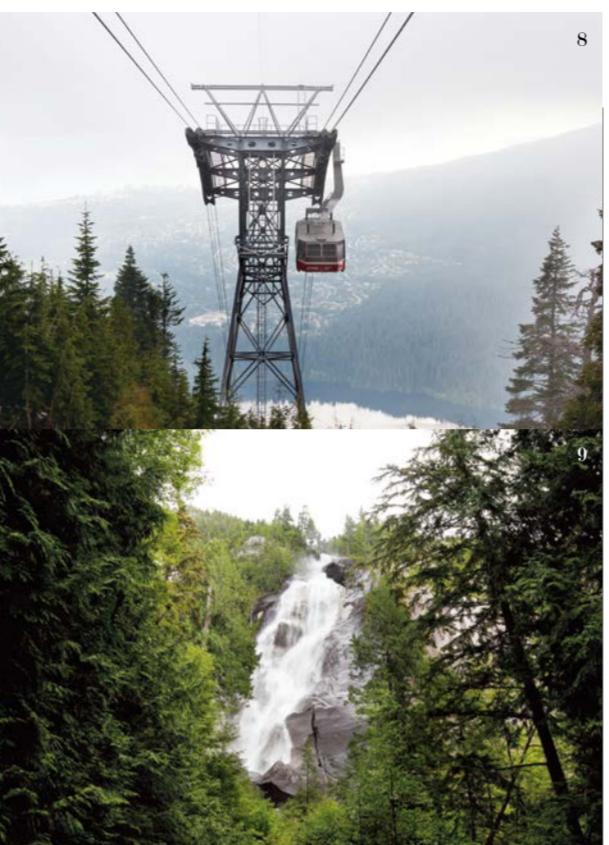
브로드웨이를 뒤집어 놓은 세상에서 가장 웃긴 뮤지컬!



스팸어랏

Book and Lyrics by Eric Idle Music by John Du Prez & Eric Idle

2013년 5월 21일~9월 1일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오래 같이 지내게 될까?” “이제 시작이지. 50년 이상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난 20년간 그랬듯 앞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두 사람.

자연 속 가득한 액티비티와 낭만

다음 날 아침 일찍 향한 그랜빌아일랜드는 부부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했다. 다운타운 남서쪽에 위치한 그랜빌아일랜드는 원래 공장지대였지만 1970년 개조를 통해 다양한 음과 레스토랑, 공연장이 들어서면서 ‘문화의 섬’으로 탈바꿈한 곳. 이곳의 퍼블릭마켓이 특히 유명하다. 마켓을 총괄하는 세프의 안내로 마켓 투어에 나선 부부는 2시간 가량 곳곳을 돌며 개성 강한 공예품을 구경하고 각종 먹거리들을 맛봤다. 선일 씨는 “과연 베리의 천국 캐나다답다. 내가 좋아하는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등 각종 베리를 이용한 식품이 많다.” 마켓에서 돌아오는 길에 부부는 제철 과일인 블루베리와 체리를 구입해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현지에서의 재미를 만끽했다.

10

11

닷새 날, 흐린 하늘에서는 이따금씩 빗방울이 떨어졌다. 이날 부부가 항한 곳은 사는 폭포.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스콰미시 지역에 위치한 높이 385m의 이 폭포는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세 번째로 낙차가 큰 폭포다. 안개가 서린 폭포는 하나의 생명체인 듯 고요한 숨결을 뿜어냈다. 손을 잡고 폭포 주변 공원 산책로를 거닐며 부부는 쉼없이 서로를 카메라에 담았다. 돌아나서는 길에는 웨스트밴쿠버의 끝자락인 홀쇼베이에서 캐나다인들이 즐겨 먹는다는 생선과 감자튀김을 곁들인 피시앤칩스를 맛보며 여행자의 자유로움을 느껴보기도 했다.

7 전 세계에서 도심을 낸 공원 가운데 가장 큰 곳으로 꼽히는

스탠리공원. 광대한 원시림 사이 수많은 산책로가 거미줄처럼 열기설기 어여 있다. 8 해발 1249m의 그라우스 산으로 향하는 곤돌라.

9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세 번째로 낙차가 큰 폭포인 사는 폭포. 10, 11 216m 높이의 하버센터. 건물 꼭대기 레스토랑에서는 밴쿠버 시내를 360도로 조망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로 연결한 다리로, 원시림을 감상하기엔 최적의 장소라고. 부부는 “이렇듯 자연 속 액티비티와 낭만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게 캐나다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곤돌라를 타고 그라우스 산으로 향했다. 이번 허니문의 대미를 장식한 그라우스 산은 해발 1249m로 밴쿠버 주변에서는 가장 높은 산. 언제나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안개가 자욱한 산 정상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었다. 꽤나 차가운 공기가 살갗에 와닿는데도 부부는 마치 갓 데이트에 나선 연인들처럼 설레는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통나무를 이용한 럼블잭쇼를 함께 감상한 부부는 그라우스 산 전망대 레스토랑에서 캐나다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나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 한번쯤 와보고 싶었다는 선일 씨는 “여행 내내 일상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다. 남편에 대한 고마움도 더 커졌다. 일주일 동안 나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리마인드 허니문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 일상생활에서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힘든 게 사실인데, 이런 기회에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판규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빅토리아와 밴쿠버는 캐나다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곳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다. 노부부가 나란히 손잡고 산책을 하고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아,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이 덧붙였다. “첫 번째 신혼여행 때의 설렌을 느꼈어요. 여기 캐나다에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주한 캐나다관광청 02-733-7790 www.keepeexploring.kr
브리티시컬럼비아관광청 02-777-1977 www.hellobc.co.kr

리마인드 허니문, 그 두 번째 기회!

이 시대의 멋진 중년 부부를 위한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의 선물은 계속된다. 첫 번째 행선지인 브리티시컬럼비아에 이어 온타리오로 떠날 부부를 찾는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로 떠나는 두 번째 리마인드 허니문 이벤트’ 응모 기간은 7월 5일까지다. 응모 자격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니어조선](http://senior.chosun.com/event) 홈페이지 (<http://senior.chosun.com/eve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캐나다관광청(02-733-7790)

THIS CAR

K9과 떠나는 건축 기행② 사람에 대한 배려가 담길 때 진정한 미학은 완성된다



굵직굵직한 국가 행사장의 대표 격으로 꼽히는 한국가구박물관은 한국적 미감의 집결체라 할 수 있다. 위엄은 있으나 위압감은 주지 않는 한옥, 간결하나 실증 나지 않는 멋을 지닌 전통 목가구. 이러한 한옥과 전통 목가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공간 조성에 걸린 세월만 17년을 헤아린다.

기아자동차의 프리미엄 세단 K9의 건축 기행 두 번째 장소는 성북동에 위치한 한국가구박물관이다.

한국가구박물관은 한 개인의 소신으로 완성된 공간이다. 정미숙 관장은 196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 것이 가

치가 편해지는 것을 보고 버려지는 전통 목가구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후 우리 가구의 쓰임새와 멋을 제대로 느끼려면 그에 걸맞은 한옥에 놓아야 한다고 여겨 1993년 성북동에 터를 마련하고 한국가구박물관을 계획한다. 궁궐, 사대부집, 곳간채, 부엌채 등 옛 가옥 10여 채를 옮겨와 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녹록지는 않은 일. 어느덧 17년 가까운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창경궁 일부가 헐릴 때 가져온 기둥과 기와를 살려 다시 지은 궁채,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의 비(妃) 순정효황후가 살던 집을 옮겨 지은 사대부집 등 각기 다른 고유의 가치를 지닌 한옥을 복원한 의미는 남다르다. 뿐만 아니라 소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삼을 때도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고려

한 덕분에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기품과 도장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선

중국은 형(形), 일본은 색(色)이라면 한국의 미는 단연 선(線)이라 할 수 있다. 말끝이 위로 살짝 올라간 벼선과 모양은 우리 고유의 미감을 논할 때 자주 언급된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한옥 처마 끝의 선도 마찬가지다. 부드러운 곡선 형태 기와지붕의 묘미는 치켜 올라간 처마 끝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가구박물관의 대문이 활짝 열리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또한 궁궐채의 처마선이다. 하늘로 날아오를 듯 올라간 처마를 가리켜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은 '반작용의 역학적 미'라고 표현한 바 있다. 사실 선은 그저 직선이나 곡선의 형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거기

에는 방향성과 속도가 담겨 있어서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역학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이 된다.

고급스러우면서도 강인한 스타일의 K9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 또한 선이다. 헤드램프를 라디에이터 그릴보다 높게 두어 고성능 럭셔리 세단으로서 강렬한 느낌을 주고, 범퍼와 후드의 구분 라인을 후드 쪽으로 상향 이동하고 후드 부위에 개성 넘치는 캐릭터 라인을 적용해 볼륨감을 살리면서 품격이 느껴지는 것. 측면부는 후드에서 앞 범퍼 하단까지 하나의 면으로 이어지는 '원스킨 스타일'의 후드 범퍼를 적용해 역동적이면서 부드러운 실루엣을 완성하고, 펜더 가니쉬에서 뒷문까지 이어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은 직선으로 세련미를 더했다. 선을 통해 차량의 기품과 감성, 성능을 표현하는 독창적인 디자인 언어는 실내 공간으로도 이어진다. 날개 형상의 크래쉬매드에는 수평 라인

진정한 가치는 사용자에 대한 배려

한옥의 편안함은 어디에서 연유할까. 그것은 바로 사용자, 즉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에 맞춘 공간 구성에 있다. 전통 목가구는 비교적 작은 크기에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보니 넓은 공간에 놓았을 때 그 미감이 제대로 읽히지 않는다. 해외여행 중 미술관을 찾았다가 한국관이라는 이름 아래 몇 점의 목가구가 놓인 초라한 모습에 실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한국가구박물관 정미숙 관장이 오래도록 수집한 전통 목가구 전시 공간을 위해 한옥을 지은 까닭도 이 때문이다. 전통 목가구는 한옥에서 쇠식 생활을 하는 이들을 위해 최적화된 가구다. 사방탁자

한국가구박물관(관장 정미숙)은 전통 목가구를 재료·종류별로 전시하는 전문 박물관이다. 궁궐, 사대부집, 곳간채와 부엌채 등 옛 가옥 10여 채를 옮겨와 그곳에 안방·사랑방·건넌방 가구 및 친장·뒤주·탁자·소반 같은 부엌 가구를 전시함으로써 우리 가구의 쓰임새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 형태가 다른 다양한 소반,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가벼운 오동나무로 만든 책함, 원목의 질감을 살려 만든 여러 가구 등 박물관이 소장한 2000여 점의 전통 가구를 통해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은은하게 물어나는 한국적 미감을 느낄 수 있다. 예약을 통한 가이드 투어도 진행한다. 일요일과 월요일 휴관. 문의 02-745-0181



1,4 기아자동차 프리미엄 세단 K9의
건축 기행 두 번째 장소인
한국가구박물관. 2 자동차 외관은
차량의 기품과 감성, 성능까지 짐작케
한다. 3 조각과 절개를 지닌 선비의 당당한
뒷모습을 담은 K9의 뒤태. 3 부엌채
외관, 세로로 긴 형태의 광장에 맞춰
사각형 돌장식을 매치했다. 5 위엄이
느껴지는 궁채. 하늘을 향한 처마 끝선의
미감이 압권이다.

THIS MAN

나는 식품공학자이자 환경공학자입니다. 동시에 가수 겸 작곡가이기도 하죠.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총 열 장 이상의 음반을 냈습니다. 대표곡으로는 '한강은 흐른다', '김치된장 청국장', '내 고향 행주나루', '어머니 천년초' 등이 있는 데, 이들 환경과 음식에 관한 노래 중 몇 곡은 초·중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어요. 혹자는 내 노래하는 목소리를 듣고 기대 이상(?)의 가장력에 놀라 대체 노래를 얼마나 한 것이냐 묻곤하는데, 글쎄요. 딱히 노래가 생활의 몇 %를 차지한다고 말할 순 없죠. 내게 노래는 그저 일상인 것 같아요.

천년초 사랑 지난 30여 년 동안 나는 항염·항암·항노화 효능을 지닌 식물 항산화제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특히 항산화제 함량이 높은 천년초에 주목하고 있죠. 영하 20도의 맹추위에서도 견딜 만큼 강한 천년초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적의 식물이라 할 수 있어요. 보통 식물보다 50배 이상의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를 이용해 음료나 과자 등 다양한 천년초 식품을 개발합니다.

최근에는 천년초 성분을 넣은 짜장면이나 탕수육 같은 중화요리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면발이 쫄깃하고 맛이 좋을 뿐 아니라 밀가루로 인한 알레르기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천년초 막걸리는 또 어떨까요. 깔끔한 맛에 숙취가 거의 없어, 가히 신의 술이라 할 만하죠(웃음). 현재 내가 머무르는 행주산성 부근에는 천년초 센터가 있어요. 천년초 중화요리와 막걸리를 맛볼 수 있고, 그 전물 위층에는 천년초박물관을 준비 중입니다. 많이들 놀라 오세요. 바로 그 앞 천년초체험농장(www.1000ylc.com)에도 한번 들러주시고요.

도시농부 나는 한강 행주나루 인근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지금도 그곳에서 텃밭을 가꾸죠. 집은 고양시 행신동인데, 아침 5시면 밭일을 하러 나갑니다. 천년초뿐 아니라 내가 평소 즐겨 먹는 대부분의 채소가 여기 밭에서 자라요.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작은 땅을 얻어 텃밭농사를 지어보세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찾으면 방법은 다 있어요. 옥상이나 베란다, 그것도 어려우면 화분에라도 심으면 되죠. 마트에서 파는 채소는 온전한 맛도, 향기도 없어요. 하우스에서 나온 것이라 별로도 안 먹는가죠. 깃잎만 빼도 특유의 알싸한 향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이런 식이다 보니 사 먹는 채소에 무슨 항염·항암·항노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믿을 음식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이 계속으로 몸에 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음식은 환경과 가장 밀접해요. 지구생태계 자체가 먹이사슬이니까. 음식의 오염은 세상 모든 것의 오염과 마찬가지죠. 음식은 되도록 자연 상태의 날것 그대로 먹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식은 매우 이로운 것이죠.

비그너 할아버지 본격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독일 유학 시절 바그너라는 할아버지를 만나면서부터예요.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바그너 할아버지는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나를 많이 도와주셨죠. 그분과 1년을 함께 살았어요. 어든다섯 살의 할아버지는 아침에 냉수마찰을 하고 낮이 되면 명상과 기공체조를 하셨어요. 채식주의자이기도 했고요. 말하자면 동양의 선비처럼 사시던 분이에요. 노자와 장자의 가르침을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동양의 전통 자연철학에 대해 그때 눈을 뜨게 된 셈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전통 자연철학을 회복하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지금은 서양의 기계문명에 경도돼버린 상태나

다름없죠. 결과적으로 '동방무례대국'이 되었어요. 자연 철학을 되살려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 그러면 우리 생활 자체가 바뀔 거예요.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을 지키는 일과도 유관하죠.

기수가 됐다면? 예와 악을 중시한 공자는 <시경(詩經)>이란 노래집을 냈어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노래로 전한 것 이죠. 일종의 음악운동인 셈입니다. 공자처럼 나도 노래로 우리의 전통 자연철학을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물론 워낙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타는 어렸을 적부터 쳤어요. 열세 살 무렵인가, 30월짜리 줄도 없는 기타를 사서 가지고 다닌 기억이 있네요. 주특기인 입

피리는 행주나루 어부였던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라고요. 대학에 다니던 1978년에는 자작곡으로 대학가요제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약 760개 팀이 나왔는데, 거기서 3~4번의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까지 올랐죠. 하지만 본선 무대엔 서지 못했어요. 뉴엣을 한 친구에게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때 우리 바로 옆 번호가 심수봉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으로 나온 심수봉도 수상은 못 했죠. 만약 무대에 올라 상도 타고, 그래서 가수가 됐다면?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얼마나 좋아요. 학자로서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고, 나는 만족합니다.

속옷 살 돈까지 아껴 2001년 즈음 첫 무대에 서게 됐어요. 언젠가 한 시인의 초청으로 여름시인학교에 참여했는데, 그때 거기 무대에서 딸과 환경 관련 노래를 한 곡 불렀어요. 그 모습을 본 한 외국 시인이 꼭 음반을 내라고 당부더군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속옷 살 돈까지 아껴 결국 음반을 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과 함께 부른 '자구를 위하여'가 1집에 실렸죠. 환경 콘서트 등 각종 환경 관련 행사에 초청도 많이 받았어요. 반응이 좋아 전국 순회공연도 다녔다니까요.

이후 발표한 음반은 총 열 장이 넘어요. 음반 당 12곡씩 들어갔으니 그간 얼마나 많은 곡을 만들고 불렀는지… 그 과정에서 많은 분이 도와주셨어요. 어떤 분은 음반을 내라고 500만 원 현금을 손에 쥐여주시기도 했죠. 노래에 감동했다고 하시면서요. 그분을 다시 만나면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 이후론 한 번도 범지를 못했네요.

영원한 자유인 환경운동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사치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같은 좌다귀찮은 얘기들뿐이잖아요. 그러니 어려워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뻔한 것이지만 생활의 사소한 부분부터 개선하는 것이죠. 텃밭을 가꾸고 에너지, 물을 절약하는 것부터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 너무 위험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 노력하지 않을 수 없죠. 나는 큰 욕심이 없어요. 돈도, 권력도 탐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 먹고 즐겁게 살고 싶은 것뿐입니다. 이런 나는 영원한 자유인이죠.



노래하는 도시농부, 그리고 영원한 자유인 - 호서대 식품공학과 이기영 교수

이기영(56) 교수는 고려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텍사스보건대 생리학과 부교수로 거쳐 현재 호서대 식품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초록교육연대 상임대표,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으로 노래와 글, 방송활동을 통해 환경운동과 전통자연철학 되찾기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천주교환경, 환경의 날 유공자 대통령표장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 『노래하는 환경교실』, 『음식이 몸이다』 『음식이 지구다』 등이 있다.



FOOD

고기 먹고 힘내자!

더위에 자진 여름이면,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쓴다'는 옛말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고기로 만든 보양식이 많지만, 자진 입맛을 깨우기엔 소고기 수육만 한 게 없다. 허나 평범한 수육은 이제 그만!

강남 일대에서 맛볼 만한 몇 가지 특별한 수육 요리.

담다이복쟁반 & 담다샐러드

눌부맑은설렁탕담다

'눌부맑은설렁탕담다'에는 다양한 수육 요리가 즐비하다. 그중 베스트셀러는 단연 담다이복쟁반. 놋장반에 수육과 전, 채소가 푸짐하게 어우러졌다. 수육의 주재료는 풍미가 좋은 업진살(우삼겹)과 차돌양지, 뿔살. 살코기 부위만을 엄선해 씹는 맛이 연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배추, 부추, 단호박, 버섯, 그리고 새우전, 육전, 둥그렁땡까지 곁들여 먹는 맛을 더했다. 냉면 아래 지자하게 걸린 육수는 순수 고기만을 우려낸 것으로 색이 맑다. 고단백의 소고기와 함께 비타민을 보충하고 싶다면 각종 채소를 버무린 담다샐러드도 좋은 선택이다. 이를하여 샐러드 수육, 업진살과 머릿고기와 양장추, 치커리, 겨자잎, 파프리카, 베이비채소 등과 무친 것. 은은한 향의 올리브오일 스스로 드레싱 해 식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 있다. 이 밖에 놀부맑은설렁탕담다에서는 퓨전화한 다채로운 수육 요리를 즐길 수 있다. 볶음수육, 냉채수육, 낙지수육 등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담다이복쟁반(3~4인분) 3만2000원, 담다샐러드 1만원. 놀부맑은설렁탕담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5 문의 02-558-5717



한우모듬수육

김자꽃

수육도 '약선(藥膳)'으로 즐비하다. '김자꽃'의 한우모듬수육은 말 그대로 약이 되는 요리다. 강원도 종가 한집의 오래된 요리법을 고수하고 있는 김자꽃 남해영 대표는 수육을 삶을 때 하수오나 황기, 헛개나무 등의 한약재를 사용한다. 잡수를 없애고 건강에도 이로운 일식이죠. 특히 그가 주로 사용하는 하수오는 기와 허를 보하는 약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하수오 속 활성성분이 치매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하수오를 먹으면 험머리가 걸어지는 등 늙지 않는다는 옛 설화가 아주 영터지는 아님 모양이다. 김자꽃 한우모듬수육은 아롱사태와 도가니를 사용해 식감이 풀깃하고 부드럽다. 걸들어 나오는 명이나물이나 숙주나물에 싸서 먹으면 새콤달콤한 수육 맛을 느낄 수 있다. 강원도식 막걸리와 전과 장떡은 둘. 그래도 출출하다면 김자꽃의 별미인 더덕비빔밥이나 낙지한마리비빔밥을 권한다. 기존의 비빔밥과는 전혀 다른 '샐러드 형식'의 독특한 비빔밥이다.

한우모듬수육 4만원(3~4인분), 비빔밥 8000원.

김자꽃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7-1 문의 02-532-5502



모듬수육전골

이화수전통육개장

수육이라고 하면 보통 접시나 돌판에 나오는 것을 떠올리게 마련. 하지만 '이화수전통육개장'의 모듬수육전골은 영양 만점 소고기와 사골을 고아 만든 육수를 쓴다. 양지와 우족, 소고기, 도가니 등 몸에 좋다는 4가지 부위를 고루 맛볼 수 있는데, 이들 고기를 삶은 물과 사골을 5시간 이상 고아낸 물을 더해 육수를 만든 것. 덕분에 육수는 색이 보이고 맛이 진하다. 대파와 청양고추를 썰어 넣어 다소 칼칼한 편.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가족과 함께 찾아도 좋지만 안주 삼아 고향 친구와 약주 한잔 기울이기에 안성맞춤. 고기뿐 아니라 양배추, 미나리, 호박, 버섯, 당근, 대추 등 함께 놀인 채소 양도 푸짐하다.

수육을 다 먹고 나면 남은 육수에 밥도 볶아먹을 수 있다.

참고로 모듬수육전골 레시피는 외식업 20년 경력의 손국대 점장이 직접 개발한 것. 그 누구보다 수육을 즐겨왔다고 자부하는 만큼 솜씨를 믿어볼 만하다. 이불리 이화수전통육개장에서는 양지고기 기름 끓어 전통 방식의 육개장도 만날 수 있다.

수육(2~3인분) 2만8000원. 육개장 8000원.

이화수전통육개장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0-31

문의 02-501-7977

LOOK

여행 방식에 따라 패션도 달라야 한다 리조트 스타일 vs 크루즈 스타일

스타일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 휴가지에서도 방식은 금물이다.
매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은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다!



Resort Style

꽃·나무·새 등 자연 문양이 들어간 화사한 색상의 셔츠, 일명 '알로하 셔츠(aloha shirt)'는 바캉스 분위기를 살리는 데 제격이다. 단, 너무 들뜬 마음에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상·하의로 옷을 감싸는 과오는 범하지 마시라!

나뭇잎과 새 프린트가 휴양지 느낌을 물씬 풀기는 프린트 셔츠, 27만 원 **풀 스미스**
스카이 블루 컬러의 잔스트라이프 면팬츠,
48만 원 **보스** 라이트 컬러 스웨이드
벨트, 18만8000원 **빈하트 디 일바트**

1편하트 디도 멋스러운 화이트 피케 셔츠,
가격 미정 **제나스포츠** 2 비어드한 그린
컬러의 피케 셔츠, 28만 원 **보스 그린**
3 워트 있는 멀티 컬러 고래 프린트의
스웨이드, 95만 원 **브리오니** 4 브리운
컬러의 간차니 버클 소가죽 샌들,
34만8600원 **실비토레 페리가모** 5 시원한
블루 컬러 해변 프린트의 버무다 소초,
39만 원 **PT01 by 랜스미어** 6 유니크한
편평 디자인의 네이비 컬러 워크업드 백,
가격 미정 **Z제나** 7 다크 그레이 컬러의
오버사이즈 선글라스, 가격 미정 **실비토레**
페리가모 8 캐주얼하게 매치할 수 있는
브리운 레더 밴드 워치, 88만5000원 **보스**
by 갤리리어클락 9 네이비 컬러 옵티컬
프린트 페도라, 25만 원 **들체 앤 가바나**

제작 문의 고드(02-3448-4778), 풀체 앤 가비나(02-6905-3677), 런시미어(02-542-4177), 빙하트 디 일바트(02-3274-6356), 보스·보스 그린(02-515-4088),
보스 by 갤리리어클락(02-348-4723), 브리오니(02-584-4533), 실비토레 페리가모(02-2140-9642), 헤스포츠(02-344-7428), 펜(02-2266-3088), 풀 월 디자인스(02-344-7428)



Cruise Style

여행의 즐거움은 일탈을 시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평소에 입기 어려운, 다소 뛰는 스타일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선상 파티나 디너에 갈 때 이 정도 차림은 해주어야 진정한 패션!

톤 다운된 레드 컬러의 노 칼라 올 재킷, 530만 원 **브리오니** 심플한 그린 프린트된 코튼 소재 리운드 티셔츠, 68만 원 **브리오니** 블루 컬러의 톤온톤 스트라이프 캐시미어 실크 혼방 머플러, 41만8600원 **실비토레 페리가모** 포인트가 되는 행거치프, 9만8000원 **빈하트 디 일바트** 화이트 컬러 코튼 팬츠, 129만 원 **카트**

1 그레이 컬러의 스웨어 프레임 선글라스, 가격 미정 **실비토레 페리가모** 2 수채화 느낌의 플라워 프린트 코튼 셔츠, 33만 원 **풀 스미스** 3 블루와 레드 컬러의 강암체크 셔츠, 15만6000원 **B.D.**

BAGGIES by 샌프란시스코 마켓

4 차분한 블루 컬러의 플라워 프린트 스웨이드, 43만 원 **카트** 5 화이트 컬러의 빅 사이즈 보양백, 520만 원 **고야드**

6 다크 브라운 컬러의 양가죽을 엮은 위빙 슬립온, 87만5000원 **아 테스토니**

7 딥블루 컬러 베젤이 멋스러운 블랙 밴드 워치, 59만7000원 **보스 by**

갤리리어클락 8 가벼운 셔츠 위에 걸치면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플라워 프린트 베스트, 57만 원 **사르토리아린 by 랜스미어** 9 소가죽 소재의 어권지갑, 7만 원대, 위빙 디테일의 소가죽 팔찌, 6만8000원 일 비중때

SENIOR CARE



휴가 떠나기 눈치 보이시나요?

쉬지 않고 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름휴가는 꿀맛 같은 시간이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반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강, 바다, 산 그리고 해외. 저마다 좋아하는 곳을 찾아 묵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떨쳐낸다. 하지만 모든 것이 꿈같은 이들도 있다. 바로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느라 휴가는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다. 특히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홀로 거동도 힘든 상황이라면 잠깐의 짧은 것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진짜 휴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힘든 일상을 벗어나 휴가지에서 보내는 며칠간의 휴식은 다시금 부모님을 정성껏 돌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물론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당장 부모님을 대신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병약한 부모님을 두고 홀로 휴가지로 떠난다는 것이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 그렇다고 미리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다.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 과정에서 아래 몇 가지 조언에 귀 기울여볼 것.

필요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자신의 마음이 정확히 어떤지를 알아야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 지금 나에게 가장 짐이 되는 일은 무엇인가?
• 내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것은 무엇인가?
•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있는가?

죄책감은 버려라

부모님을 집에 두고 떠나려니 마음이 영 불편한가. 아마도 죄책감이 고개를 내밀어서일 것이다. 부모님을 타인의 손에 맡기고 쉬다는 게 편치만은 않다. 하지만 죄책감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마음의 불편을 이유로 휴가를 미루는 것은 복잡한 상황을 잠시 피하는 것일 뿐, 누구도 당신의 휴가를 대신 혀락할 수는 없다.

휴가를 나눠서 가라

그럼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휴가 계획을 무리하게 세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휴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데도 휴가를 꿈꾼다면 조바심만 커지기 마련이다. 이럴 경우 2~3일의 짧은 주말 휴가를 여러 번 가는 것이 방법이다. 휴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의 휴가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Home Instead
시니어 케어
가족처럼 돌보는 어르신의 동반자

사진: gettyimages/multis

SENIOR EXPO

시니어의 삶과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시니어 엑스포 열전!

시니어나 베이비부모를 대상으로 한 행사가 올 하반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6월 27일 개막하는 '2013 부산국제실버엑스포'를 시작으로 고양시에서 열리는 '시니어&장애인 엑스포',

서울에서 열리는 '2013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와 '베이비부모 엑스포', 그리고 '광주국제실버박람회' 등이 연이어 개최된다.

광주국제실버박람회

11월 21~23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국제실버박람회는 국제전시연합(UFI) 인증을 받은 국제 전시회로 해외 주요 업체와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본과 노르웨이, 중국 등 8개국 150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며, 국내외 최신 헬스케어 제품과 고령친화용품, 의료 서비스를 접할 수 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가하는 국제노화심포지엄 등 20여 종류의 고령친화산업 및 헬스케어 관련 학술행사가 함께 열린다. 박람회장은 고령친화 우수용품, 기기 및 차량, IT 및 로봇, 주택 및 금융, 의료 및 요양, 의류 및 식품, 웰빙 라이프 등 77개 영역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이울러 휴먼케어 영역을 별도로 설치해 이곳에서 헬스케어와 에듀케어, 라이프케어 산업 전반의 전시가 진행된다.

베이비부모 엑스포

10월 25~27일

서울광장 및 시민청 일대

지난해 시니어일자리엑스포 행사를 진행했던 서울시는 올해에는 명칭을 바꿔 베이비부모 엑스포를 개최한다. 민·관 공동으로 열리는 베이비부모 엑스포는 베이비부모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민 축제의 장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신노년층의 연착륙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방향성 등을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행사 등도 열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행사를 통해 베이비부모 세대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과 시니어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3 서울국제 시니어엑스포

SEoul INTERNATIONAL SENIOR EXPO



2013년 10월 10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토요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홀 D

2013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 | 주최: SENIOR PARTNERS | 코스피 시니어조선 | SMS | Global Partner: AARP

시니어&장애인 엑스포 SENDEX 2013

8월 29~31일 경기 고양시 KINTEX

올해로 9회를 맞는 시니어&장애인 엑스포 SENDEX 2013은 자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킨텍스가 주관하는 종합복지산업 전시회다. 지난해 24개국 589명의 해외 바이어를 유치하는 등 장애인 보조기구, 고령친화 복지용구 제조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돋고 있다. 올해에는 고령친화 우수제품 홍보관, 국제보조기구 공모전,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고령친화 장관 포상, 해외바이어 보조공학산업 인센티브 투어 등이 부대행사로 열린다. 또 스마트에이징 심포지엄, 국제보조공학 심포지엄, 고령친화용품 국제 표준화 회의 등의 행사를 개최된다. 더불어 같은 기간 동일한 장소에서 2013 엑티브에이징코리아(고령친화산업박람회)도 열린다. 엑티브에이징코리아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전시회로 실버산업 활성화 및 산업 간 정보교류의장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기, 요양, 식품, 금융 등 고령자를 위한 9대 산업이 총망라돼 있다.

2013 부산 국제실버엑스포

6월 27~29일 부산 해운대구 BEXCO

부산국제실버엑스포는 고령친화용품 및 기기, 요양 서비스, 의료기기, 여가 서비스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고령친화제품 전문 전시회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벡스코가 주관하는 행사를 통해 6회째를 맞이한다. 9개국 140개 기업이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복지·재활용구 산업, 실버·의료 요양관, 노후준비관, 이벤트 특별관 등이 운영되며 1:1 바이어 수출 상담회와 국내 유통상담회도 별도로 진행된다. 시민공개 건강강좌와 세미나, 무료 건강검진 등 일반 참가객을 위한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또 동시 행사로 6개국 600여 명의 의료기관과 전문가가 참가하는 '국제노인의료 심포지엄'과 '부산국제인티에이징엑스포'가 개최된다.

2013 서울국제 시니어엑스포

10월 10~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2013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는 회원 수 3800여 명을 자랑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시니어 커뮤니티인 AARP(미국은퇴자협회)가 공식 글로벌 파트너로 참가하는 명실상부 민간 최대의 노후·은퇴 준비 박람회다. 대한민국 1등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기업 (주)시니어파트너즈와 대한민국 대표 시니어산업 선도 기업 에스엠에스(SMS)가 공동 주최한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미무리된 첫 행사의 노하우를 자랫대 삼아 올해 두 번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3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는 고령화 프리미엄 시니어 행사를 표방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참관객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고학력·고소득 시니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 졸업 이상 63%, 월 고정소득 200만 원 이상 51%로 조사됐다. 관람 목적은 본인의 노후 준비가 61%, 정보 수집과 부모님 노후 준비가 각각 19%와 16%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전시 부스 관람객 상당 실적은 7400여 건으로 파악됐으며, 올해는 이를 뛰어넘는 결과가 예상된다. 때문에 시니어를 타깃으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 영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 금융, 건강, 생활, 레저 등 시니어들의 관심사가 반영된 8가지로 구성된다. 국제 시니어 비즈니스 콘퍼런스와 세미나 등 부대행사가 함께 열리며, 참가 기업들은 참관객을 대상으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에스엠에스가 공동 주최인 만큼 올해 행사엔 일본 기업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업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전시 부스와 기업 후원, 출입증 후원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6월 30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를 하는 기업에게는 5%의 부수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문의 2013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 운영사무국 02-3218-6249(expo@yourstage.com) www.seniorexpo.co.kr

ENTREPRISE



당신의 품격을 위한 K9 멤버십의 특별한 선물

세상에 좋은 자동차는 많다. 하지만 고객의 품격까지 세심하게 지켜내는 차는 드물다.

최근 기아자동차는 프리미엄 세단 K9 고객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다.

No.1 K9과 함께하는 유리 바슈메트 & 마스터클래스 음악회

5월 29일 저녁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는 감미롭고 우아한 바울라 선율이 가득 울려 퍼졌다. 객석은 한동안 숨을 죽였고,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는 알레그로 모데라토에서 알레그레토에 이르기까지 유려하게 이어졌다. 무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유리 바슈메트. 유리 바슈메트는 '비올라 발생 아래 최고의 연주자'라는 수식이 늘 따라붙는 러시아의 세계적인 바울리스트, 모스크바 국제 바울라 콩쿠르의 창립자이자 심사위원장,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로 활동 중인 그는 국내에도 많은 팬을 거느린 정상급 스타다.



자신이 이끄는 솔리스트 양상을 '모스크바 솔로이스트'와 함께 한국 무대에 오른 것은 약 2년 만의 일이다.

이번 공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인 것은 단지 거장의 귀환 때문만은 아니다. 객석으로 눈길을 돌려보자. 바슈메트와 만나기 위해 자리를 메운 200여 명의 관객 역시 특별한 손님이긴 마찬가지. 이들은 모두 기아차 K9의 멤버십 회원이다. 말하자면 이 공연은 정정의 달 5월을 맞아 기아차가 준비한 색다른 선물인 셈. 기아차는 지난 5월 8일부터 22일 까지 홈페이지(www.kia.com/kr) 등을 통해 공연을 관람할 고객을 모집했고,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0쌍을

초청했다. 그렇게 'K9과 함께하는 유리 바슈메트 & 모스크바 솔로이스트'는 막을 올렸다. 더욱이 기아차는 이번 공연과 함께 음악을 전공하는 K9 고객 자녀를 위해 모스크바 솔로이스트 수석 단원에게 직접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마스터클래스 기회도 제공했다.

유리 바슈메트가 꾸민 세계 최정상급 음악회

'K9과 함께하는 유리 바슈메트 & 모스크바 솔로이스트'에는 고객에게 품격 높은 예술을 선보이고자 한 기아차의 노력이 담겨 있다. 유리 바슈메트와 그의 양상을 자체가 세

최고연주상까지 휩쓸며 한국 국적으로 피아노 부문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젊은 피아니스트 손열음까지 가세했다. 바흐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WV1052'를 연주, 모스크바 솔로이스트와의 완벽한 협연을 선보이며 객석의 열띤 호응을 이끌었다.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끝으로 공연이 끝난 뒤에도 관객은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다. 박수갈채와 앙코르 외침이 쏟아졌다. 마침내 세 번째 앙코르 무대를 끝으로 공연은 막을 내렸다. 공연을 관람한 K9 고객들은 하나같이 이번 공연의 수준에 큰 만족을 표했다. 지난 3월부터 K9을 타고 있다는 용인의 정도영 씨는 "양질의 공연이었다"며 "아내가 클래식을 매우 좋아하는데, 음악을 함께 감상하며 부부간의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2월 K9의 오너드라이버로 이름을 올린 후 생애 처음으로 기아차 패밀리가 된 권민도 씨 역시 "바쁜 일상 속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공연을 보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고객의 품위까지 생각하는 기아차의 배려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성과 열정이 깃든 마스터클래스

기아차가 마련한 선물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공연에 앞선 지난 5월 25일 청담CGV 프리미엄 시네마에서는 음악을 전공하는 K9 고객 자녀를 위한 마스터클래스가 진행됐다. 기아차는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K9 고객 자녀 혹은 고객 지인의 자녀 가운데 바이올린, 바울라, 첼로를 전공하

는 7명의 초·중·고교생을 선별해 'K9 고객 클래식 꿈나무들을 위한 마스터클래스'의 값진 기회를 안겼다. 이는 어느 기업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색다른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아차가 마련한 케이터링 서비스를 받으며 가족과 즐거운 점심을 한 학생들은, 오후 1시부터 모스크바 솔로이스트 수석 단원으로부터 약 4시간 동안 차례대로 지도를 받았다. 바이올린은 앤드레이 포스크롭코 모스크바 솔로이스트 야장이, 바울라와 첼로는 각각 로만 발라쇼프와 알렉세이 나이에노프 수석 단원이 지도했다. 지도에 나선 단원들은 교정이 필요한 구절에 대한 반복 연주를 시지하거나 무대로 나가 직접 자세를 교정하는 등 세심한 가르침을 베풀었다. 레슨이 끝난 후 수료 학생들은 마스터클래스 수료증 수여와 함께 단원들과의 기념촬영 시간을 갖기도 했다.

에두아르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을 연주한 힌간고 흥민

양은 "이번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멀리 경남 함안에서 하루 전날 서울에 왔다. 아버지가 K9 멤버십 회원인데, 지인에게서 이번 행사 소식을 전해 듣고 참석하게 됐다"며 "레슨을 받는 시간 내내 무척 편했지만, 열정 넘치는 마스터들에게 많이 배운 것 같다.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마스터클래스 행사 소식을 접하고 딸의 참석을 독려한 오기원 씨는 "아이가 서울에 고등학교에서 바울라를 전공하고 있다. 자연히 이런 행사에 관심이 많다. 마스터클래스를 직접 본 것은 처음인데, 아이의 연주 모습을 지켜보니 더할



2, 3, 6
'K9 고객 클래식 꿈나무들을 위한 마스터클래스'에 참가한 K9 고객 자녀들은 모스크바 솔로이스트 수석 단원에게 약 4시간 동안 레슨을 받았다. 4 레슨이 끝난 후에는 마스터클래스 수료증이 수여됐다. 5 당일 점심에는 고객 가족들이 모두 모여 기아차가 마련한 케이터링을 즐기며 단란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No. 2 한국여자오픈 사전 고객 초청 라운딩 'K9 VIP 인비테이션'



AM 07:00~08:00

참가자들이 속속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클럽하우스에 도착하자,
입구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의전 도우미들이 안내를 도왔다.
참가자들의 차량은 밸리팅 후
아외 주차장에 마련된 자동차
점검센터에서 차량 캐어 및 세차
서비스를 받았다.

PM 04:00~05:00

행사 본대회 시상은 개인 우승, 개인 준우승, 팀
베스트 우승, 팀 베스트 준우승 등 4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개인 우승의 영광은 총 85타(핸디 15.6,
네트 69.4)를 기록한 구호진 씨에게 돌아갔다. 그는
한국여자오픈에서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트로피를 거머쥔 것은 물론, 타이틀리스트 아이언 8세트와
타이틀리스트 퍼포먼스센터에서의 피팅 기회를 얻었다. 한편
개인 준우승에게는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와 퍼팅 기회가, 팀
베스트 우승 · 팀 베스트 준우승에게는 각각 파주 스마트 KU
라운딩관과 콘래드호텔 숙박권이 주어졌다.

AM 08:30~09:30

기아차가 K9 고객들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이어 스포츠 분야에서도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여자오픈 골프대회가 열리기 전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에서 사전 라운드를 펼칠 수 있는 'K9 VIP 인비테이션' 행사를 마련한 것.

이벤트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총 140여 명의 K9 고객들은 지난 6월 17일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을 찾아 오전 8시 조찬을 시작으로 기아차가 준비한 당일 일정을 '풀코스'로 소화했다. 기아차는 조별 골프대회를 비롯해 한국여자오픈 홍보대사인 정일미·김미현 프로의 원포인트 레슨, 뮤지컬 배우 배해선의 갈라디너쇼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하고 밸리팅, 차량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참가자들은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울에 거주하는 K9 오너 오동교 씨는 “큰 경기가 치러질 필드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어 좋았다”며 “오늘 현장에서 프로에게 퍼터 방법을 다시 배워서인지 최고의 성적을 냈다. 기쁘다”고 말했다. 밖에서 씨 역시 “한계 경기한 K9 오너들과 초면임에도 돋도한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더 자주 치러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PM 05:00~06:00

저녁부터는 리셉션 및 공식 만찬이 이뤄졌다. 만찬에서는 뮤지컬 배우 배해선이 갈라디너쇼를 진행, 'Fly to the moon' '나 가거' 등의 유명곡을 연달아 선보이며 참가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AM 10:00~PM 03:00

1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조별로 라운딩을 즐겼다. 4명씩 총 35개의 조가 짜여졌다. 몇 곳의 특정 홀에서는 라운딩 이벤트가 마련됐다. 특히 17홀 끝 것은 K9 홀, 퍼어웨이 중앙에 별도의 K9존을 구성, 존 안에 볼이 안착할 경우 경품을 지급했다. 이 밖에 드라이버 거리를 측정해 풍기스트, 니어리스트를 선발,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 및 퍼터를 수여했다. 출인원을 할 경우 기아차 Ray가 경품으로 주어졌다.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아차는 파리솔을 이용한 임시 그늘집과 간식 카트를 추가로 운영하기도 했다.



전 세계 골퍼들의 로망, 타이틀리스트

이번 'K9 VIP 인비테이션' 행사에서 눈길을 끈 한 가지는 바로 타이틀리스트의 피팅 밴이다. 행사에 참가한 K9 고객들에게 밴에서의 피팅 기회를 제공한 것은 물론, 아이언세트·드라이버·퍼터 등을 시상품으로 후원했다. 수상자들은 성남시 야탑에 위치한 타이틀리스트 퍼포먼스센터에서 직접 피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아울러 타이틀리스트는 지난 6월 20~23일 치러진 '기아차 동차 제27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용품 관련 독점 스폰서로도 활약했다. 타이틀리스트 측은 이번 후원에 대해 “그간 특정 기업과의 코미케팅(co-marketing)을 자제해왔지만 기아차의 K9 고객이 우리 타이틀리스트의 타깃층과 잘 맞다고 판단했다. 대중에게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골프용품업체 타이틀리스트는 골프를 치는 거의 모든 이들의 로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991m² 규모의 타이틀리스트 퍼포먼스센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션사이드에 위치한 오션사이드테스트센터의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그대로 실내 환경에 맞도록 개발한 곳. 센터는 드라이버, 롱게임, 아이언, 웨지 등 14개 클럽과 스윙을 분석하는 총 3개의 피팅베이와 퍼터 피팅이 이루어지는 스카터 카메론 퍼터 스튜디오, 타이틀리스트의 볼과 클럽 등을 볼 수 있는 제품전시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미국 타이틀리스트 본사로부터 장기간 교육을 받은 클럽 퍼터가 상주, 골퍼들의 퍼포먼스와 스코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피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이틀리스트 R&D센터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타이틀리스트만의 '퍼포먼스 피팅'을 통해 골퍼 개인의 신체와 스윙스 타일에 맞는 최적의 클럽과 효율적인 스윙을 제안해주는 것. 스윙 분석 시스템의 경우, 센터 방식을 통한 기존의 평면적인 분석 시스템과 달리 총 4대의 카메라를 이용한 3D 입체 분석 방식의 스윙 분석 시스템을 적용했다. 타이틀리스트 퍼포먼스센터는 100% 사전예약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문의 02-3014-6100

FINANCE

생애 재무설계, 지금 당장 시작하라

은퇴 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현재를 살아가기에 급급해 미래 재무 설계는 제쳐두고 있지 않은가. 퇴직 이후 20~30년,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영위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은퇴 전략을 세워야 한다.

행복한 생애 설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금전적인 요소다.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재무 설계가 불가피한 이유다. 노후생활 비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부부가 함께 생존해 있을 때의 생활비고, 둘째는 은퇴 후 들어가는 취미·여가 활동비다. 셋째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사망한 후 홀로 사는 기간의 생활비고, 넷째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사망하는 시점에 사용하는 의료비다.

노후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은퇴 전 소득의 60~70%로 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노후에 드는 평균 월 생활비는 200만 원 정도. 물론 사람마다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은퇴 전 생활수준, 건강상태, 거주지역, 여가활동 등에 따라 차이는 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두세 가지 만성질환을 앓게 된다.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사망하기 직전에 드는 의료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사망 직전에 지병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사망 관련 의료비'라고 하는데, 이는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20~30%에 달한다고 한다.

투자를 위한 대안은 펀드다

대표적인 투자자산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꼽을 수 있다. 부동산은 대표적인 자산 중식 수단으로,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부동산 불폐 신화를 더욱 강화했다. 그러나 노령 인구의 증가로 주택 가격은 지금까지의

비 200만 원(여가생활비 포함), 물가상승률 3%, 노후자산 운용수익률 4%라는 전제 조건하에 은퇴 생활비를 따져보면 7억~12억(현재 가치 2억~4억 원)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국민연금 기부부다. 국민연금을 20~30년간 지속해서 부으면 노후에 월 60만~12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간에는 준비해야 할 노후자금에 큰 차이가 생긴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운데 약 30%가 국민연금에 기부하지 않고 있다. 앞서 노후 생활비 예상치 7억 원은 국민연금 기부자의 경우이고, 12억 원은 미가입자의 경우다. 따라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은 기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노후를 100% 보장해주진 않는다. 예상 필요 비용 7억 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연 4~5%의 금리를 주는 은행 예금만으로는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식과 펀드, 부동산, 보험 상품 등 다양한 투자를 통해 기대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은퇴자금 얼마나 될까

현재 남편 40세, 아내 38세인 부부가 남편이 60세에 은퇴할 경우, 필요한 노후자금은 얼마나 될까. 남편의 예상 사망 시점 85세, 사별 후 아내 홀로 생존기간 10년, 은퇴 후 월 생활비는 120만 원(여가생활비 포함)으로 가정해보면, 노후자금은 120만 원 × 10년 = 1,200만 원이 필요하다. 노후자금은 120만 원 × 10년 = 1,200만 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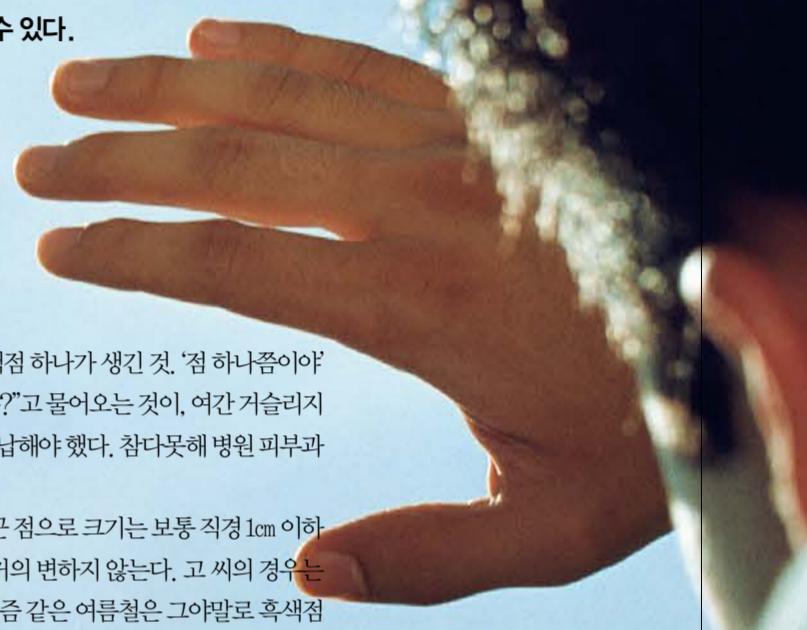


한국은행/한국은행

HEALTH

日光 흑색점 조심하세요!

여름철이면 유독 피부를 괴롭히는 자외선. 방심했다간 흑색점이나 기미, 검버섯 등 각종 색소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



Tip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는 자외선 A, B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광범위 차단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자외선 A는 자외선 B에 비해 일광 화상은 일 일으키지만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이 자외선 B의 10~100배로 피부에 더욱 깊숙이 침투한다.

그리므로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자외선 A와 B 모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 차단제 곁면에 표기된 SPF(Sun Protection Factor)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숫자가 클수록 일광 화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받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PA(Protection grade of UV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로 +에서 +++로 표시되어 있다.

반드시 SPF와 PA,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는 적정량을 잘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 곁면에 표시된 정도의 효과를 내려면 외출하기 30분쯤 전 귀와 목을 포함한 얼굴에 적어도 1/2 티스푼을 골고루 펴 발라야 한다. 특히 아외 활동 시에는 물과 땀에 의해 자외선 차단제가 지워지므로 2~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다.

얼마 전 50대 고미남 씨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 뺨 한쪽에 짙은 갈색점 하나가 생긴 것. '점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만나는 이들마다 '웬 점이니?'고 물어오는 것이, 여간 거슬리지 않았다. 난데없이 생겨난 점 때문에 그간 지켜온 '동안(童顏)' 타이틀도 반납해야 했다. 참다못해 병원 피부과를 찾은 고 씨는 그것의 정체가 다른 흑색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흑색점은 흔히 '흑자'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갈색 또는 검은색 등 근접 점으로 크기는 보통 직경 1cm 이하다. 피부의 어느 부위나 생길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형태, 색,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고 씨의 경우는 노인성 흑색점(일광 흑색점)으로, 햇빛에 오래 노출된 탓에 생겨난 것. 요즘 같은 여름철은 그야말로 흑색점의 전성기인 셈이다. 이는 대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뾰족한 치료법은 없을까.

노인성 흑색점을 비롯해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피부 색소질환의 이모저모에 대해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피부과 김명신 교수에게 물었다.

Q 자외선에 노출되면 왜 피부 색소질환이 생기는가

피부의 색깔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는 '멜라닌 세포'라는 특수한 세포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외선에 노출되면 이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는다. 그러면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가 전달되는 과정이 촉진되어 색소성 병변이 발생하고 그 상태가 악화되는 것이다.

Q 중·장년층에 가장 밀접한 피부 색소질환은 무엇인가

노인성 흑색점이라 할 수 있다. 자외선에 오랜 기간 노출된 부위에 불규칙한 모양으로 갈색 혹은 검은색 반점이 산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50대 이후 얼굴과 손등에 나타난다. 자외선 강도가 센 여름철에는 기준의 병변이 더 진해질 수 있고, 새로운 병변이 생길 수도 있다. 40대 이상이라면, 이미 어린 시절부터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Q 여름철 색소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적은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다. 그리고 모자나 긴 소매 옷 등을 착용해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매일 발라야 하는 필수품이나 마찬가지다. 자외선 노출에 따른 여러 피부 질환, 즉 색소질환이나 피부 노화 및 피부암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중에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신에게 잘 맞

는 제품을 찾아서 매일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름철에는 물론이고 날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습관화하자.

Q 시중에나와 있는 기능성 화장품은 얼마나 움이 되나

최근 색소질환을 예방한다고 알려진 여러 기능성 화장품이 선을 보인 것으로 안다. 좋은 화장품이 많이 출시되어 사용자들의 선택 폭도 넓어졌고,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화장품이다. 즉, 치료 보조제로서의 역할이 단독으로 색소질환을 치료하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Q 노인성 흑색점을 비롯한 색소질환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색소질환의 종류와 발병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미백 가능성이 있는 국소 치료제를 도포하는 것과 레이저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노인성 흑색점이나 검버섯의 경우 1~2회의 레이저 치료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기미는 개인차가 심하지만 복합 요법으로 꾸준히 치료하면 어느 정도 제거된다.

Q 색소질환을 방지할 경우 특별한 부작용이 있다

대부분은 미용적인 문제다. 요즘은 중장년 이후에도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하지만 노인성 흑색점이나 검버섯으로 알고 지나치는 것들 중에는 피부암이나 피부암 전구 단계인 광선 각화증인 경우도 있으므로 피부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자외선에 늙는 피부

피부 노화는 나이를 먹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자외선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쫓 경우 노화가 더욱 가속화된다. 이를 '광노화'라고 하는데 광노화된 피부는 두꺼워 앎아지고, 크고 작은 주름이 생긴다. 피부결이 거칠어지며 탄력을 잃어 처지기도 한다. 또한 모세혈관 확장이나 색소 침착 등으로 피부 색조도 불균일하게 변한다.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는 노출 시간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자외선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방법이다. 이미 광노화가 진행된 피부를 완전히 되돌리는 어렵지만 충분한 보습과 여러 가지 피부과 치료로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SORT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타임셰어 오너십 세계의 호텔 리조트를 별장으로 삼다

휴식을 위해 떠나는 휴가인 만큼
'내 집처럼' 편안한 곳에서 머물다 와야 만족지수가
높은 법이다. 힐튼 호텔 계열의 최고급
별장식 리조트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의 타임셰어
오너십은 고객의 이런 심리를 공략한 서비스.
기존 호텔 리조트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타입의
별장식 호텔을 소개한다.

세계는 넓고 갈 곳은 많다. 그러나 여행의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낯선 곳으로 떠나기보다는 익숙한 곳에서 편안히 즐기다 오는 여행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매년 같은 곳으로 휴가를 떠나는 이들의 심리가 이해되기 시작한다면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클럽의 타임셰어 오너십에 주목하자.

타임셰어 오너십은 호텔 리조트를 시간 단위로 공유하는 것으로, 1년을 52주로 나눠 원하는 주(週) 만큼 소유·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은 운영하는 특정 리조트의 오너십을 구입했다면 평생 오너로서 매년 회원이 소유한 기간(일주일)을 기본으로 주 단위로 기간 산정 가능(동안 개인 별장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오너십으로 가입한 리조트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출장이나 휴기를 가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전 세계 100개국에 위치한 3750여 개 힐튼 호텔이나 제휴 호텔에서 대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내에 소유한 기간을 다 쓰지 못한다 해도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 다음 해로 연기하거나 친지나 친구가 대신 사용할 수도 있어 매우 활용도가 높다. 또한 오너십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과 같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타인에게 매매, 양도 및 상속도 할 수 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해외 별장을 마련하는 데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터. 게다가 지구상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는 하와이에 언제고 갈 수 있는 '내 집 같은' 별장을 소유한다면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Hilton
Grand Vacations**



Grand Waikikian

와이키키 비치에
별장을 소유하는 행복
- 그랜드 와이키키안 -

호놀룰루 국제공항이 있는 하와이 주의 주도 오아후는 우리나라 초여름과 비슷하지만 습하지 않은 기후, 천혜의 자연환경, 명품 숍과 면세점, 미국에서 가장 큰 아웃도어 쇼핑몰 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과 여유로움, 도시가 제공하는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오아후 섬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 비치 리조트 & 스파 내에 위치한 '그랜드 와이키키안'은 38층 규모의 최고급 별장식 리조트로 침실, 거실, 주방을 겸비해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가를 보내기에 최적의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컨시어지 서비스, 전용 라운지 등 투숙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함을 더한다.

그랜드 와이키키안이 자리한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 비치 리조트 & 스파는 세계 최고의 리조트로 손꼽히며 와이키키 해변의 중심부에 위치, 눈이 시리게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빌리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8만 9000m²의 방대한 부지에는 열대식 정원과 폭포를 비롯해 5개의 수영장, 90개가 넘는 숙소와 브랜드 매장, 22개에 달하는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구비했다. 호텔 인근 와이키키 해변에서는 스노클링과 서핑, 스쿠버다이빙 등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Kings' Land

골프 마니아들을 위한
천상의 별장
- 킹스랜드 -

하와이 섬은 하와이 제도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곳으로 일명 '빅 아일랜드'로 불린다. 환상적인 골프 코스가 있는 '킹스랜드'는 아름다운 해변을 바라볼 수 있는 하와이 섬 최고의 고급 리조트 지구인 코할라 코스트의 와이콜로아 비치 리조트 내에 자리한다. 하와이 풍으로 디자인한 킹스랜드의 모든 객실에서는 골프 코스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대규모 부지 클럽하우스에는 다양한 시설이 구비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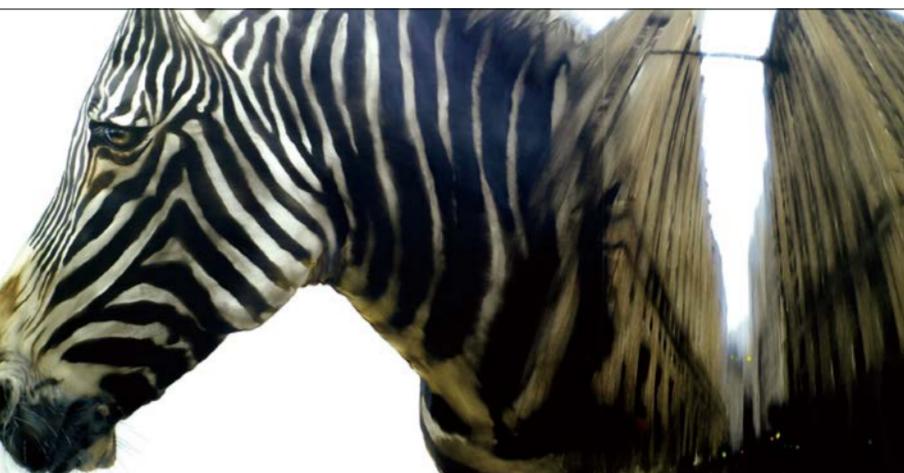
킹스랜드가 자리한 와이콜로아 비치 리조트는 아름다운 해변과 골프 코스로 골퍼들 사이에서 선망의 리조트로 손꼽힌다. 일반 리조트 호텔에 오션뷰가 있다면 와이콜로아에는 골프 코스 뷰가 있을 정도로 근사한 전망을 자랑하는 것. 리조트에는 두 개의 챔피언십 골프 코스가 있는데, 킹스 골프 코스는 빅 아일랜드의 장관 사화산으로, 비치 골프 코스는 아무리 뛰어난 골퍼라도 피하기 쉽지 않은 거대한 워터해저드로 유명하다. 특히, 구불구불한 과 5홀은 거울에는 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절호의 포인트로 인기가 있다.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은 밀레니엄 서울 힐튼 내 세일즈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및 예약 02-2055-3340~3341, www.hgvc.co.kr

BULLETIN

Gallery

구본정展 '오만과 편견'
매끈한 가죽과 하늘로 뻗은 갈기를 지닌
동물과 나란히 배치된 건물이 있는 곳은
뉴욕의 월 스트리트. 좁은 길로 이어진
이 오랜 동네는 그 자체로 완결된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마천지자로 이미 하나의
생물체로 완결된 동물과 월가는 작가의
그림 속에서 서로 멀뚱거리며 섞이지
않은 채 병자되어 있다. 각자 티자기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는 서로에게 오만하고,
그 오만은 서로에게 편견을 구축한다.
7월 28일까지 옵시스 아트에서 열린다.
문의 02-735-1139



Home Theater



심플한 구성, 입체적 사운드
홈시어터의 명가
'보스(BOSE)'에서
선보이는 '씨네메이트
1SR(CineMate®1SR)'은
스피커 하나로 입체음향을
구현하는 프리미엄 홈시어터다.
사운드바 형태를 도입한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공간감 넘치는 웅장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사용자의 방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최상의 서리운드
음향을 잡아주는 스마트
시스템(보스 독자적 기술인
ADAPTIQ®)이 내장되어 어느
환경에서도 입체음향을 즐길 수
있다. 보스 홈시어터는 룸데,
신세계 등 전국 주요 백화점
내 BOSE 직영매장과 청담동
직영점에서 체험해볼 수
있다. 242만 원.
문의 02-3446-3003



Watch

클래식한 커플 워치
몽블랑 워치 하우스의 오랜
노력과 장인들의 열정을
담아 탄생시킨 스타 컬렉션은
몽블랑의 클래식한 디자인과
뛰어난 워치 메이킹 기술이
결합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스타
데이트 오토매틱 컬렉션'은
화이트 실버 컬러 기요세
다이얼에 로마숫자를 장식해
클래식한 느낌을 강조했다.
케이스 뒷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청을 통해 몽블랑의
기술력이 친밀한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장인의 손길이 깃든 아름다운
메커니즘이 감상할 수 있다.
동일한 디자인에 36mm
다이얼의 여성 모델과 39mm
다이얼의 남성 모델로 출시된다.
문의 02-3485-6627

Cigar



소장 가치 높은 한정판 시가

쿠비안 시가를 수입·유통하는 피에르시가(PIERRE CICAR)에서 한정판 쿠바 시가를 선보인다. 이번 시즌 새롭게 출시되는 쿠바 시가는 총 8종으로, 홍콩 피씨피시가의 20주년을 기념해 만든 '엘레이델문도 애니버사리온'은 오직 아시아에서만 만나볼 수 있어 해외 시가 마니아들 사이에서 그 소장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시기다. 또한 우프만 로부스토, 파르티가스 C No.3와 몬테크리스토 520은 2012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어 시가를 즐기는 애호가라면 주목할 만하다. 문의 02-790-4522

AARP, 韓 기업 대상 '고령친화기업 인증' 설명회 개최

전 세계 최대의 시니어 커뮤니티인 AARP(미국은퇴자협회)는 지난 6월 24일 '더클래식 500'에서 AARP의 한국 사무소 역할을 하게 되는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기업(주)씨니어아파트너즈(대표 박은경)와 함께 '2014 AARP 고령친화기업 인증'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령친화기업 인증사업(The 2014 AARP Best Employers International Award)'은 전 세계 기업 중 인적자원 활용에 있어 50대 이상 근로자의 미래를 위해 혁신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2000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2010년부터는 전 세계 각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을 확장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령친화기업 인증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처음 참여해 10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으며, 2014년 4월 접수가 마감된다. 인증 기업은 2014년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AARP의 조식 콜렛 부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AARP 고령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전 세계 주요 기관과 기업, 미디어는 물론 AARP의 전체 회원들에게 그 사실이 공표되는 등 기업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AARP가 후원하는 권위 있는 국제 포럼에 참석해 기업의 우수한 사례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얻는다"고 말했다. 문의 02-3218-6240

AARP

gsk
GlaxoSmithKline

5060세대를 위한 폴리엔트 청춘콘서트

세계적인 제약회사 글로스 스미스클라인(GSK)은 지난 6월 22일, 대학로에 위치한 SH 아트홀에서 'GSK 폴리엔트 청춘콘서트'를 무료로 개최했다. 이야기, 음악, 건강 등 총 3가지 테마로, 5060세대 연예인들과 동 세대의 이야기를 나누고 즐기는 공연형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부는 방송인 이상복과 함께 '인생 2막'을 주제로 한 이야기, 2부는 가정의학 전문의 어 에스더가 '5060세대 젊은 찾기'를 주제로 구강 관리를 비롯한 시니어 몸 관리에 대한 건강 토크를 이어갔다. 3부에서는 세사봉 윤형주가 출연해 자신의 인생 스토리와 함께 감미로운 토크를 펼쳤다.



Book

이 책은 '소식'을 주제로 한 여느 책들과 다르다. 적어 먹는 것이 몸에 좋으니 실천해보라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소식이 몸뿐 아니라 마음도 성장시켜 인생 전반을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설득한다. 저자는 소식을 하되, 아무렇게 대충 때우지는 말 것을 강조한다. 어떤 식사를 축제처럼 즐기는 것이 인생을 친밀하게 만드는 비법이라고. 도미니크 크로 저, 바다출판사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부자는 갈수록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지며 그 수는 늘어난다.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책은 불평등이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법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세계화와 통화 정책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이 불평등의 심화에 어떻게 기여해왔는지를 분석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저, 열린책들



이지승, 그는 1972년 광고계에 입문해 1990년대까지 CF 감독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2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단편영화 '1/75'를 발표하며 영상 작가로 데뷔, 활발한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영상전 '해찰, 動과 해찰, 靜'을 리씨 갤러리와 트렁크갤러리에서 각각 열었다. 책에는 작가가 지난 몇년 동안 미국, 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動)의 장면(靜)을 담았다. 김연숙 외 3인 저, 수류산책



우리의 삶에 건강과 의료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내시경으로 들여다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현미경으로 살펴보고,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 망원경으로 내다본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현대인의 기능주의, 이들 사이의 엇박자가 우리 삶의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의사로 10년, 의학 전문기자로 14년을 살아온 저자가 통렬하면서도 따뜻하고 풀어내는 의료와 건강,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담았다. 김철중 저, 도서출판민족

당신이 생각했던 사양을

당신이 생각지 못했던

가격으로 만나는 가장 매력적인 탄생

2014 쏘나타 어트랙션 탄생



WILEY HANDBOOK OF

조나타너 브릴리언트 사운드 프로젝트 소리와 가장 먼 사람을 깨지소리와 함께 달리기하자
지금, 현대자동차 퍼시픽스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감상해보세요. 조나타너 터치를 통해 뮤직비디오를 전국 농어학교에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https://www.facebook.com/AboutTheArtist1>



Journal of Oral Rehabilitation 2003 30: 103–109



전연 가죽시트

조나다 너 트릴리언트 스토리 쓰니와 함께 한주씩 일상등 친문한빛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간: 2013년 6월 10일 ~ 7월 31일 범위: 대표번호 #5656으로 문자번호 (시작번호+7) 및 정보이용료 100원은 나온다.
※ 오기나 친구에게 드는 키드폰이나 태블릿폰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이나 다른 휴대폰으로도 가능합니다.



100



SONATA

The brilliant

 **HYUNDAI** |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